

무림페이퍼와 무림SP는 현재 총 28개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으로 제지업계 최다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클린폴라리스, 네오그린박리지 등 대표제품들이 환경마크 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획득했다.



INTERVIEW

제지

이상호
무림제지 실장

제지업계 최초로 FSC인증 획득, 업계 최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보유
친환경 제품 생산·유통 확산에 앞장

제지 자체가 환경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굴뚝산업이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나 북유럽쪽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 이미 20여년전부터 환경규제의 강도도 높았다. 특히 환경단체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환경에 저촉이 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다. 물론 정부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이러한 환경단체들이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도 친환경 상품의 소비가 활성화된 나라로서, 2000년 제정된 ‘그린구입법’ 적용 이후 환경인증 제품의 구매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9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체로 하여금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상호 실장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더불어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제지업체들에게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실제 FSC 인증 여부가 수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해 제지업체들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만 세계에 뒤쳐지지 않는 친환경 상품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한다.

무림페이퍼/무림SP에서 획득한 친환경마크들

무림페이퍼와 무림SP는 현재 총 28개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으로 제지업계 최다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클린폴라리스, 네오그린박리지 등 대표제품들이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획득했다. 이상호 실장은 “MFC지에 있어서는 주요 사용 평량대인 70~80g/m² 모두에 대

해 인증을 획득했으며, 네오클린폴라리스는 국내 최초 친환경 팬시용지로서 환경부 카탈로그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00g 이상 고품량의 아트지와 스노우화이트지에 대한 인증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절약과 더불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무림은 제품의 친환경성을 중요시 여기는 북미, 호주 등 선진 시장에 FSC 인증 아트지, 스노우화이트지, 라벨지 등을 수출하고 있다.

그린박리지

맥주병, 약병 등에 들어가는 스티커가 생각보다 종이소비량이 많다. 스티커 종이는 한쪽면은 인쇄를 위해 코팅이 된 것이고, 다른 한면은 라미네이팅을 한다. 그때 P.E코팅을 한다. 그런데 'P.E코팅'이 환경에 좋지않은 방식이다. 이상호 실장은 "P.E가 환경규제물질인데, 100년동안 썩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회사에서 P.E코팅을 안하는, 일반종이처럼 썩기도 하고, 재생도 가능한 네오그린박리지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몇 개 업체만이 그린박리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무림페이퍼/무림SP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노력들

이상호 실장은 "무림페이퍼와 무림SP가 사용하는 펄프는 전량 ECF 펄프이며, 지난 2007년 6월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FSC CoC 인증을 획득한 후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조립된 목재를 원료로 한 펄프(FSC 인증펄프) 사용을 시작했으며, 점차 그 사용량을 확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원시림 무단벌목 및 유전자변형 목재펄프가 아닌 FSC인증 받은 목재펄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1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상호 실장은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은 굴뚝이 없다. 제지공정에 필요한 스팀을 인근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받아 대기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맑은 물을 위해 1차 화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 활성 오니법을 통한 미생물처리, 3차 펜톤처리 등 완벽한 폐수처리 시스템을 구축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친환경경영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무림은 종이 수출의 40%를 FSC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수력하고 있는 인쇄업체들도 친환경 종이를 구매하고 있다. 이는 제품에 FSC마크를 부착하려면 소비자인 인쇄사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종이도 FSC인증 받은 제품만을 구매한다. 현재 삼화인쇄가 FSC 인증을 받아 무림에서 FS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쇼핑백제조업체인 동성인쇄도 디잉킹펄프를 사용한 재생 펄프를 쓴 종이를 무림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상호 실장은 "국내업체들도 조금씩 친환경종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물론 이 친환경 종이들은 톤당 5~7만원정도 종이가격을 더 받는다. 하지만 수출을 통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구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인쇄사 환경개선, 선택이 아닌 필수

종이는 작업환경에 민감하다. 인쇄 작업환경에서 종이의 수분함수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면을 찍고 뒷면을 찍을 때 신축이 일어나서 인쇄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종이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업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상호 실장은 "인쇄사에서는 파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 작업환경이 잘 되어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인쇄사는 비가 들이치는데도 창문을 열고 인쇄를 하는데, 비닐로 된 커튼막이라도 쳐놓으면 습기도 막고 이물질이나 벌레도 막을 수 있다. 이렇듯 최소한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인쇄사들이 조금 더 파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파지들이 줄어들고, 환경도 그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